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오 현 숙[†]

Kirstin Goth

민 병 배

한신대 교육대학원

Klinik fue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J. W. Goethe Universitaet Frankfurt a.M.

마음사랑인지행동치료센터

본 연구에서는 독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만 12-18세의 715명의 독일 청소년 ($M=14.70$, $SD=1.80$)과 1411명의 한국 청소년들 ($M=15.18$, $SD=1.69$)이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해 관찰되었다. t-검증 결과, '자기초월' 척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6개의 전 기질 및 성격척도에서 독일과 한국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작은 평균 차이에도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크기 효과를 검증하는 effect size를 분석하였을 때,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에서, 성격차원에서는 자율성 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 집단이 독일청소년 집단에 비해 억제와 불안 차원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 특성과 아울러 자기수용, 자기신뢰, 목적의식, 유능감 차원에서 낮은 자율성 성격특성을 나타내었다. 두 문화에 나타난 성차를 effect size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독일과 한국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 특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틀에서 논의되었으며 각 문화권의 교육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비교문화, 인성, 기질, 성격, 개인주의, 집단주의, 청소년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서는 Cloninger et al.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을 근거로 personality는 인성, temperament는 기질 그리고 character는 성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personality 개념 또한 모두 인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 교신저자 : 오현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E-mail : hyunsookoh@hs.ac.kr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 모든 문화에 걸쳐 균 일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것 인지는 심리적 단일성의 가정(assumption of psychic unity)과 심리적 다원성의 가정(assump tion of psychic pluralism) 아래 오래전부터 비교 문화심리학의 핵심 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종전까지 심리학에서 비교문화적 연구는 다소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심리학의 전 통이 문화에 따른 심리과정의 다양성 가정보 다는 단일성 가정을 더 신봉하고 인간심리의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연구방법을 주로 사 용해왔기 때문으로 보아진다(민경환, 1996).

그러나 최근에는 서구에서 발견된 인간의 심리적 보편성 중 많은 것들이 인간보편의 경 향성이 아니라 서구사회에 국한되는 특수한 경향(Triandis, 1987)일 것이라는 전제로 인간심 리와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해졌다. 특히 Hofstede(1980, 1991)와 Triandis (1990, 1995, 1998)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기본적인 틀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을 제시하여 비교문화연구에 큰 활력을 주었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속하는 인간의 심리과 정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 적 자아와 독립적 자아 개념의 틀이 자주 사 용되기도 하였다(Markus & Kitayama, 1991, 1994).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심리과정 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문화 와 문화를 비교하는 경험적 연구는 실상 수적 으로 매우 드문 편이다.

외려 국내에서는, 문화와 문화 간의 비교 속에 인간의 심리과정을 분석하는 비교문화연 구는 아니지만 문화가 지닌 독특한 심리현상 을 내부자의 입장에서 조명함으로써 문화심리 학의 한 갈래가 되는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적 관점으로 우리 한국인의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인의 성격을 규명하며 이를 여 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심리학의 여 러 영역에서 매우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도들로는 유교를 우리문화의 중추 적 역할을 한 종교로 보고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유교와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하는 인 문학적 접근들이 1970년대 이후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김성태, 1976; 조궁호, 2003; 차재 호, 1980, 1994; 한덕용 2003 등) 근래에는 사 회과학적이고 경험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여러 심리학 영역에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예: 김의철, 박영신, 2006; 박영신, 김의철, 2006a, 2006b, 2005; 차재호, 1994; 최상진, 1989, 1991, 1992, 2000 등).

그런데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화되는 세계 화시대에 살고 있다. 시장경제와 인터넷의 발 달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 의 지구촌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 하게 되는 다문화시대에 살게 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단일민족 혈통사상의 강조를 비판한 한 기사(오창민, 강 병현: 경향신문, 2007-8-22)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지나친 단일민족 혈통 사상과 자국민 위주의 차별주의를 우려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72 만 명을 넘음으로써 총 인구의 1.5%에 해당하 고 또한 농어촌 총각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지극히 다문화 다민족의 형태로 나 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동양적인 집단주의 문화와 서양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하는 사회로 변모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이수원, 1995; 한덕용, 이경 성 2003). 특히 도시지역에 살거나 젊은 층일

경우는 농촌지역이나 노인층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정에 대한 책무가 동양의 미덕이며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윤태림, 1970)이라 할 수 있는 인정에 대한 책무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추정해 보건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에게서는 훨씬 더 강할 것으로 가정된다. 경계 없는 인터넷망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타문화에 대한 특히, 선진문화에 대한 훨씬 개방적인 태도가 이들에게서 타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더 용이 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랜 유교 및 불교 문화 속에서 유래되는 우리 한국인 고유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 다문화 속에 살게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지역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곳에 위치한 타민족, 타국민의 것과 기존의 가정대로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가장 빨리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를 들어 문화와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비교하였다. 흔히 독일은 개인주의 문화,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보아진다(김혜은, 이진순, 2006; Kuechler, 1993; Cha, 1994). 문화성향은 자의식의 유형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 1994) 또는 사적 자기(Private self: Greenwald & Pratkanis, 1984; Triandis, 1989) 개념이 우세하여 강한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 Tajfel, 1981; Triandis, 1990; Weldon, 1984)이 발달하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 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Fiske et al., 1998; Kunda, 2000)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Markus & Kitayama, 1991, 1994) 또는 공적/집단적 자기(Public self/collective self: Greenwald & Pratkanis, 1984;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 Tajfel, 1981; Triandis, 1990; Weldon, 1984)이 더 발달한다고 한다.

즉, 개인주의 문화(서구, 특히 북미중류계급의 문화)는 자기란 타인에서 분리된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한 독립적 자기 개념이 우세한 문화이며 이런 문화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그러한 속성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독립이 확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중요시된다고 한다(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8). 따라서 이런 문화에서는 호오(好惡)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발달하며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지향적 동기가 발달하고 추구되는 인간상은 뛰어난 능력자로서 자조, 자율, 독립, 공정, 자유, 솔직 등이 우선되는 인성특성이라 할 수 있다(이수원, 1996).

반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는 자기는 타인과 근원적으로 결합되어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기 개념이 우세하다. 이런 문화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그 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위치를 차지하고 타인과 상호의존적,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사람이다(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8). 이런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타인과

의 상호공존이 충족된 다음에야 중요시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보다는 훌륭한 인격자가 이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되고 인내, 절제, 인화, 의리, 겸손, 충절 등이 바람직한 인성적 소양으로 추구된다(이수원, 1996).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중심으로 나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에서는 추구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다르고 따라서 발달하는 자아 개념이 다르며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성적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경 없는 시장경제와 경계 없는 정보망을 통해서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만약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는 내재돼있는 정서적 문화의 뿌리가 깊다면 이러한 동서양의 문화차이는 인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문화마다 기대되는 고유한 성역할이 있을 수 있다. 동서양의 문화에서 기대되는 성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또한 인성발달의 성차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일찍이 Belenky et al.(1996)과 Gilligan(1982)은 남성과 여성의 인성발달을 결정짓는 실재와 진리의 인식 방법(ways of knowing)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인성적 성차를 해명하려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각각의 문화에는 문화특수적인 또는 문화를 초월하는 문화보편적인 인성 발달의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세계화경향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청소년기를 중점으로 이러한 문화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과정에 대한 문화차이의 경험적 연구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인성구조 또는 심리과정들과 연관된 문화차이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은 그 방법으로서 주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인 Big Five(5대 요인검사)를 사용하였다(민경환, 1996). 물론 이 검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심리적 특성들에 나타나는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이 검사가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들이 타민족에게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고 보인다. Big Five는 자연언어에 포함된 사람들의 인성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는 모든 형용사들을 검출하여 통계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사람들의 인성차원이 5개의 요인으로 수렴된다는 결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검사로서 이러한 요인분석의 전통은 영국 인성심리학의 3대 인성요인(정서성: emotionality 후에는 신경증으로 명명됨, 의지 및 외향성) 모델들(예를 들어 Burt, 1937; Webb, 1915; Rothbart 1989에서 재인용)에서 출발하여 Eysenck(1970)의 외향성, 신경증(Neuroticism) 그리고 정신병 성향(Psychoticism) 모델들을 통해 발전한 것이다. Big Five로 추출된 5대 요인은 외향성, 동조성, 신중함, 신경증, 공개성(Costa & McCrae, 1985; Goldberg, 1981, 1993)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그런데 종전의 이러한 요인분석에 의한 검사들(Big Five의 5대 요인 외에도 Cattell의 16요인 등)은 몇 개의 매우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요인분석으로 얻은 인성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인성 요인들의 숫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민경환, 1996; Amelang & Bartussek, 1997).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나타내는 인성 특성 차원들은 인성의 구조 자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하여 설명할 만한 이론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판점은 최근의 생리학과 약리학 및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심리생물인성모델(Cloninger, 1999; Cloninger, & Svrakic, 1997; Cloninger et al. 1994)에 의해 살펴보았을 때 요인분석에 의해 얻은 인성구조는 인성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형성된 인성의 현상적인 구조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 인성 요인들에는 유전적으로 이질적인 요인들이 함께 함해 있어서 인성의 현상적인 표현형질(phenotype)과 유전형질(genotype)과의 혼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인성의 현상적 특성만을 관찰하는 것은 인성발달의 근원과 인성(성격)장애 및 기타 문제 또는 예방측면 등을 분석할 때 큰 제한점이 된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비교문화연구를 하면서 인성을 타고난 부분, 즉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최근에 비로소 심리생물인성모델 등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의 문화간 균일성 또는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의 영향이 얼마만큼 생물학적 영역, 즉 유전적 요인에게까지 관여되어 있으며 얼마만큼 유전적 요인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달하는 인성의 후천적 특성에 관여되어있는지 구분해서 보는 것은 문화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심도 높은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생물인성모델(Cloninger, 1999; Cloninger, et al., 1994)에 의해서 인간의 Personality¹⁾ 구조를 타고난 특성

인 기질(Temperament)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Character)으로 구분하여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을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만 12-18세의 독일 청소년 715명(M=14.70, SD=1.80)과 동일 연령대의 한국 청소년 1411명(M=15.18, SD=1.69)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전국단위로 청소년용 JTCI를 표준화하기 위해 표집 되었으며 표집과정에서 조사 문항에 4개 이상의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사람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난 경우이다.

JTCI를 이용한 조사 실시는 독일과 한국 모두 2003-2004년도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의 표집 방법 또한 두 나라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은 다음 연구대상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하였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연구대상의 부모가 서면 동의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하는 것으로 동의 절차를 대신한 것은 다른 점이다. 두 국가에서 모두

되지 않고 흔히 혼재되어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종전에는 personality, temperament 및 character가 심리측정적 개념으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용어 사용의 구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인성은 기질과 성격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Cloninger et al.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을 근거로 볼 때는 personality는 인성으로, temperament는 기질로, 그리고 character는 성격으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된다.

1)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personality에 대한 한국어용어로서 '성격'과 '인성'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흔히 성격이란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었다. 이렇듯 성격과 인성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구분

부모가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측정도구

JTCI(The Junior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 청소년용

JTCI는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따라 만들어진 기질 및 성격검사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의 청소년용이다. TCI의 연구 및 개발은 원저인 C. R. Cloninger와의 협의 아래 미국과 독일의 두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독일에서는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였고 미국에서는 성인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였다(오현숙, 민병배, 2004,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따라서 독일판 JTCI는 문항구성 및 신뢰도와 타당도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 JTCI는 독일 JTCI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상응하는 표준화를 목적으로한 여러 단계의 예비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오현숙, 민병배, 2004). 독일 JTCI와 한국 JTCI는 동일한 척도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독일 문항은 84 문항인데 비하여 한국문항은 한국문화에 맞지 않는 관계로 신뢰도가 낮은 2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8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독일 JTCI에서도 해당되는 2개의 문항을 제외시켜 독일과 한국 모두 82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0에서 3점의 4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JTCI는 독일의 경우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우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동일 연령대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

상으로 표준화되어있다. 이 검사는 인성(Personality)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JTCI는 총 7개의 상위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4개는 기질 차원으로서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그리고 인내력(Persistence)이며, 3개의 척도는 성격 차원으로서 자율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그리고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이다. 이 총 7개의 성격 및 기질 척도에는 전체 24개의 하위 성격 및 기질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총 24개의 하위 척도는 척도별로 2-5개의 적은 문항 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위척도 명은 오현숙, 민병배 2004 참조). JTCI에서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며, 인성 발달의 원재료이고 기본틀이 된다. 기질의 개인차는 우리 뇌의 신경활성화시스템의 신경발달양상의 차이로 설명된다. 즉, JTCI의 첫 번째 척도인 자극추구 척도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체계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에 대해서, 혹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이다. 두 번째 척도인 위험회피는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와 관련되며, 이것은 처벌이나 위험 신호, 혹은 보상부재의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척도인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로서 이전에 보상된 행동이 지속적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이다. 이 신경활성화시스템은 여러 특정 뇌구조(오현숙, 민병배, 2004 참조)를 통해 설명되고 신경전달물질 체계와도 연결되었는데 자극 추구 기질에는 도파민 작용이 중심역할을 하고, 행동 억제 체계와 관련된 위험 회피 기질에서는 세로토닌 방출이 무엇보다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과 관련해서는 노어에피네프린이 행동 유지 체계를 조절하는 주요 신경전달물질인 것으로 설명된다. JTCI의 4가지 기질의 구조와 안정성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 검증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기질 차원들은 유전적으로 각자 동질적이며 서로 독립적임이 대규모의 쌍생아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Heath et al., 1994; Stallings et al., 1996).

성격은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학습 속에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곧,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은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해

석과 관련되며 개인의 목표, 추구하는 가치를 포함하는 자기 개념(self-concept)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다. 따라서 성격의 세 차원은 자기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자율성으로, 자신을 얼마나 사회의 일부로 보느냐에 따라 연대감으로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우주의 일부로 보느냐에 따라 자기초월로 구분된 것이다.

표 1은 한국과 독일 JTCI 검사의 내적합치도와 재검사를 통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민감성 기질 척도에서 독일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0.45로 낮았는데 이는 이 척도가 여러 다양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6개 척도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경우 모두 0.60-0.76에 분포하는 점수를 보여, 전체적으로 내적합치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재검사 신뢰도는 두 국가 모두에서 전체 0.81-0.95 사이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독일과 한국 JTCI의 척도별 내적 합치도 및 재검사 신뢰도 계수

척도	내적 합치도		재검사 신뢰도	
	한국 청소년	독일 청소년	한국 청소년	독일 청소년
자극 추구	0.74	0.75	0.81	0.88
위험 회피	0.82	0.76	0.95	0.86
사회적 민감성	0.65	0.45	0.87	0.85
인내력	0.69	0.61	0.81	0.86
자율성	0.76	0.75	0.83	0.89
연대감	0.72	0.74	0.84	0.85
자기 초월	0.66	0.69	0.81	0.88

분석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연구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작은 차이에도 쉽게 통계적 유의미 결과가 나오는 점 (Bortz & Doering, 2002)을 감안하여 effect size를 함께 분석하였다. 각 문화권 속에서 남녀 차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성차 효과 또한 *t*-검증과 effect size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 과

표 2는 JTCI의 네 개의 상위 기질 척도와 세 개의 성격 척도에서의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집단간 차이를 나타낸다. 표가 나타내듯이 *t*-검증의 결과를 볼 때 성격차원의 자극추구 척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척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집단크기가 클 경우, 곧 집단별 연구대상 수(n)가 많을 경우, 집단 간의 작은 차이에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Bortz & Doering, 2002)을 고려하여 표준편차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하기위해 effect size를 계산하였을 때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

표 2. 청소년용 JTCI에 나타난 독일과 한국청소년의 기질과 성격의 차이 (t-검증):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effect size

청소년용 JTCI 척도		독일 (n=715)	한국 (n=1411)	<i>p</i>	effect size (d)
자극추구	평균	21.84	21.17	0.020*	0.10
	표준편차	6.75	6.11		
위험회피	평균	16.01	21.88	0.000***	0.90
	표준편차	6.34	6.64		
사회적 민감성	평균	16.07	16.61	0.004**	0.14
	표준편차	3.73	4.22		
인내력	평균	14.63	13.63	0.000***	0.27
	표준편차	3.71	3.61		
자율성	평균	27.63	21.15	0.000***	1.07
	표준편차	6.30	5.82		
성격 연대감	평균	27.29	25.00	0.000***	0.40
	표준편차	6.18	5.18		
자기초월	평균	18.34	18.24	0.669	0.02
	표준편차	5.30	4.71		

p*<.05, *p*<.01, ****p*<.001

표 3. 청소년용 JTCI의 인성척도에 나타난 독일청소년 집단의 성차 양상(t-검증):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effect size

청소년용 JTCI 척도		독일 청소년		p	effect size (d)	
		남 (n=338)	여 (n=377)			
기질	자극추구	평균	22.05	21.65	0.43	0.06
		표준편차	6.62	6.87		
	위험회피	평균	14.89	17.02	0.000***	0.34
		표준편차	6.06	6.42		
	사회적 민감성	평균	14.56	17.42	0.000***	0.83
		표준편차	3.62	3.28		
인내력	평균	14.44	14.80	0.19	0.10	
	표준편차	3.91	3.52			
성격	자율성	평균	28.72	26.65	0.000***	0.33
		표준편차	6.01	6.40		
	연대감	평균	25.41	28.97	0.000***	0.60
		표준편차	6.61	5.22		
	자기초월	평균	17.51	19.07	0.000***	0.30
		표준편차	5.63	4.88		

*p<.05, **p<.01, ***p<.001

피’ 척도에서만, 그리고 성격 차원에서는 ‘자율성’ 척도에서만 큰 효과²⁾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곧, 독일의 청소년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위험회피의 기질적 특성이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그리고 자율성의 성격적 특성은 유의하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표 4는 각 문화별로 심리적 특성에

2) Effect size 분석에서는 d=0.20는 작은 효과, d=0.50은 중간 효과, d=0.80은 큰 효과라고 가정한다. d=1은 관찰된 평균 차이가 완전한 1 SD (표준편차)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곧 지능에서는 15 IQ의 차이를 의미한다.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과 effect size 분석의 결과이다. 표 3이 나타내는 것처럼, 독일청소년 집단에서는 ‘자극추구’와 ‘인내력’ 척도를 제외한 3개의 기질 척도와 2개의 성격척도에서 모두 t-검증을 통해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그 효과 크기를 검증한 effect size(주석 참조)를 분석하였을 때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에서만 유의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일의 청소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함을 나타내는 사회적 민감성 특성이 유의하게 크다는

표 4. 청소년용 JTCI의 인성척도에 나타난 한국청소년 집단의 성차 양상: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effect size

척도	청소년용 JTCI 척도	한국 청소년		p	effect size (d)	
		남 (n=626)	여 (n=785)			
기질	자극추구	평균	21.09	0.68	0.06	
		표준편차	5.95			
	위험회피	평균	21.91	0.88	0.01	
		표준편차	6.47			
사회적 민감성	평균	15.12	17.80	0.000***	0.67	
	표준편차	3.82	4.15			
인내력	평균	13.40	13.82	0.03*	0.12	
	표준편차	3.50	3.69			
성격	자율성	평균	21.30	0.40	0.04	
		표준편차	5.65			5.94
	연대감	평균	24.54	25.38	0.002**	0.16
		표준편차	5.19	5.15		
자기초월	평균	17.71	18.66	0.000***	0.20	
	표준편차	4.89	4.52			

*p<.05, **p<.01, ***p<.001

결과가 나타났다.

표 4가 보여주듯이 한국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남녀의 성차는 t-검증 결과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차원에서, 그리고 ‘연대감’과 ‘자기초월’ 성격차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 크기를 검증한 effect size 분석에서는 독일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신호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민감성’에서만 특성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시장경제와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함께 아울러 한 국가 안에서도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다문화시대에 살게된 현재, 가장 문화흡수에 빠르다고 보아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문화간 심리적 균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빠른 속도의 세계화 시대, 지역 내의 다민족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살게 된 이러한 시점에서는 여러 인종과 문화의 화합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과 한국의 만 12-18세의 청소년의 심리적 구조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나타난 연구결과로서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타고난 특성이며,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을 의미하는 기질 차원에서 독일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강한 '위협회피' 특성을 나타냈으며,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 차원에서는 독일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약한 '자율성'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선행된 문화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그 수가 극히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요인분석에 의해 구분된 성격척도를 사용하여 현상적 성격특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심리생물학적 성격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된 본 연구결과를 함께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주요 틀로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개념(Hofstede, 1980, 1991; Triandis, 1990, 1995, 1998)을 사용하고, 개인주의의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Markus & Kitayama, 1991, 1994) 또는 사적 자기(Greenwald & Pratkanis, 1984; Triandis, 1989) 개념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자조, 자율, 독립, 공정, 자유, 솔직 등의 인성특성(이수원, 1996)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고한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서양 문화권에 속하며 개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청소년들이 동양문화권에 속하며 집

단주의 문화라 할 수 있는 한국(김혜은, 이진순, 2006)의 청소년들 보다 자기신뢰, 자기수용, 뚜렷한 목표의식, 자기 통제의 자율성 등을 속성으로 한 '자율성'이 강하다는 결과는 부분적으로, 즉 서양문화 중심으로 볼 때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양문화, 집단주의 문화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상호의존적 자기(Markus & Kitayama, 1991, 1994) 또는 집단적 자기(Greenwald & Pratkanis, 1984; Triandis, 1989) 개념이 우세하게 발달하는 집단주의 사회라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된 바로는 인성차원 중 타인수용, 배려, 공감, 이타성, 타인에 대한 관대함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연대감'이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비교집단보다 더 컸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결과는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의수준은 아니지만 평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가 더 발달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는 상치된다. 오히려 이 연구결과는 상호독립적 자기관(독립적, 사적 자기개념) - 상호의존적 자기관(집단적 자기관)은 (양분되는) 일차원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되며 직교하는 이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양쪽 모두 높은 문화나 양쪽 모두 낮은 문화 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문화도 상정할 수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8)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해당되는 자율성은 독일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면서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함께 발달할 수 있는 연대감 또한 비교집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요하게 인식되

는 것은 우리 문화가 더 이상 집단주의 문화가 아니라거나 또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가 아니라는 식의 결론은 성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금까지 ‘인정’을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윤태립, 1970)이며 최고의 덕목(이수원, 1995)이라 여겨온 우리에게 이렇게 상치된 결과는 우리에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성과 같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성 특성 외에도, 한국 청소년들이 타고난 특성이며,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인 기질 차원에서 독일청소년보다 유의하게 강한 ‘위협회피’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은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며 소심하고 꼼꼼하고, 미리 계획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이 비교집단보다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곧, 보상부재 또는 벌의 신호에서 억제성향이 더 강함을 말한다. 기질적 특성은 유전적 요인이며, 약물이나 생리적 자극을 유발하는 강한 스트레스가 없는 한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 속성이다. 또한 특정 뇌신경구조 (ARAS: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및 orbital frontal cortex, medial septal area 및 시상하부: Hippocampus)와 관련이 있고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크게 관련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기질적 특성의 문화간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발견적 가치 (heuristic value)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정되기는 한국 민족이 독일 민족보다 근세기에 오랫동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생리적 영역에까지 작용함으로써

유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한국의 청소년들이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입시 과정 속에 살면서 입시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와 사회에 대해서 독일의 청소년에 비해 보다 불안전하고 불투명하게 지각하고 따라서 불안한 심리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으며 관련하여 미리 준비하고 미리 걱정하는 성향이 기질적으로 더 강하게 분화발전되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한다. 비교해볼 때 독일청소년들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이르게, 즉 아동기(초등 4-6학년)에 진로 방향이 결정되며, 청소년기에는 진로 방향에 맞는 실습과 사회체험을 통해 자기 발달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문화를 초월한, 즉 문화간 균일성으로서 발견된 결과는 한국과 독일 각각의 문화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기질 차원, 곧 타고난 특성으로서 사회적 신호와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문화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보다 더 애정적이고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력이 크며 객관적이고 사무적/실용적 성향보다 사람친화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문화권에서 모두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요구되는 성향으로서 생물학적 특성으로 성향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인성발달을 결정짓는 실재와 진리의 인식 방법(ways of knowing)이 서로 다르다는 Belenky et al.(1996)과 Gilligan(1982)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들은 남성의 인식형태는 분리적 앎(separate knowing)으로, 여성의 인식형태는 관계적 앎(connected knowing)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식형태에 바탕을 둔 자율성 발달이 강하고, 여성은 어려서부터 친밀하고 비구조적인 형태의 대화에 익숙한 경험적 논리에 바탕을 둔 인식형태에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민감성 및 보살핌, 배려, 친밀감 등을 중시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발달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사회적 신호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타고난 민감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면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더 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시대, 국경없는 정보화시대에 살면서도 타문화에 가장 개방적일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서도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문화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청소년들을 살펴볼 때 기존 연구에 의해서 보고된 동양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존하는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아울러 매우 중요하게는 우리 후손들의 발달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꾸고 전승시켜야 할 또는 발전시켜야 할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상당부분 탐색적 연구로서 계속되는 후속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성격(인성)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최근의 도구로서 기존의 성격(인성)연구 도구들이 갖는 문제점을 크게 보완하고 있으며 여러 장점을 갖고 많은 국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복 입증되었지만 심리적 특성과 문화간의 관계를 연

구하면서 단 하나의 도구에 의존하였다는 것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후속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참고문헌

- 김성태 (1976). *성열인격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인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민경환 (1996). 성격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연구세미나*. 79-103.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TCI 통합매뉴얼*. 서울: (주) 마음사랑.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a). 한국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6b).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오창민, 강병환 (2007-8-22). 초등 4-6학년 교과서, 단일민족·혈통 지나치게 강조. 경향

- 신문.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용. 서울: (주) 마음사랑.
- 윤태림 (1970). 한국인. 현암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8). 한국인, 서구인인가 일본인인가?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경향에 있어서의 비교문화연구. '98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이수원 (1995). 심리학연구의 통합적 탐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동계심리학 연구세미나, 188-195.
- 이수원 (1996). 올바른 부모역할, 올바른 자녀 역할: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4, 1-23. 서울: 한양대학교.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교육 문화연구소, 교육논총, 3권, 17-65.
- 조궁호 (2003). 한국인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차재호 (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한상북. 차재호.이문웅.양춘.안병만.신유근. 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 차재호 (1994). 지난 백년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40-58.
- 최상진, 최연희 (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눈치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시안. 1989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한국심리학회편, 212-221).
- 최상진 (1991). '恨'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199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대회 학술발표 논문 초록 (한국심리학회 편, pp. 339-350).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Amelang, M., Bartussek, D. (1997). *Differentielle Psychologie und Persoenlichkeitsforschung*. 4. Auflage. Stuttgart: Kohlhammer.
- Belenky, M. F., Clinchy, B., Goldberger, N. R., & Tarule, J.M. (1996). *Knowledge, Difference and Power: Essays inspired by Women's Ways of Knowing*. New York: Basic Books.
- Bortz & Doering (2002). *Forschungsmethoden und Evaluation (2. Auflage)*. Berlin: Springer.
- Cha, J.-H.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pp.157-174)*. London: Sage.
- Cloninger, C. R. (1999). A new conceptual paradigm from genetics and psychobiology for the science of mental health. *Aust N Z J Psychiatry* 33: 174-86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osta, P. T. Jr.,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Eysenck H. 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915-981). Boston, MA: McGraw-Hill.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141-165.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나은영. 차재호(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Kuechler, M. (1993).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in Germany: The making of a democratic society. In A.S. Huelshoff, A.S. Markovits, & S. Reich (Eds.). *From Bundesrepublik to Deutschland* (pp.33-58).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MIT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Kohnstamm, J.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187-248). Chichester, England: Wiley.
- Tajfel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41-133).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A: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Weldon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02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2. 29

Differences in basal personality development of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according to JTCI 12-18

Hyunsook Oh* Kirstin Goth** Byoung Bae M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hin University

**Klinik fue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J. W. Goethe Universitaet Frankfurt a.M.

***Institute of Cognitive & Behavioral Therapies, Maumsarang

In order to observe from a cross-cultural point of view,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were compared. The 715 German subjects aged 12-18($M=14.70$, $SD=1.80$) and 1411 Korean subjects of the same age($M=15.18$, $SD=1.69$) were assessed through JTCI 12-18 as to whether there exist differences in temperament and character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t-test, the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6 main scale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with only one exception in the character scale, that of 'self-transcendence.' If we analyze the effect size, because even small differences in great samples becom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significant outcomes appeared only in two scales, one of temperament(Harm Avoidance) and the other of character(Self-Directedness): Korean subjects showed a higher tendency of Harm Avoidance related to inhibitions and anxiety and a lower tendency of Self-Directedness, meaning self-acceptance, purposefulness etc. Sex-differences according to the effect size showed only on the scale of Reward Dependence, which was the same in both samples. The outcomes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hich are used to divide the Western and Asian cultures. It is also suggested to view these outcomes in the education-political and social bases of each country.

Key words : Cross-cultural psychology, Personality, Temperament, Character, Individualism, Collectivism, adolescent